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럽 Top30 보험사, 2009년 스트레스 테스트 예정

- 유럽의 Top30 보험사들은 금융위기 발발에 따른 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2009년 의무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유럽보험·퇴직연금감독위원회(CEIOPS)의 Steffen위원장이 발표함.
 - 금번의 유럽 보험사 스트레스 테스트는 미국 대형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으로 유럽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대되는 건전성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의 일환임.
 - * CEIOPS(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Supervisors)는 유럽은행감독위원회(CEBS), 유럽증권감독위원회(CESR)와 함께 유럽 3대 금융시장 감독기구 중 하나로서 보험과 퇴직연금의 감시·감독을 위해 2003년 11월에 창설됨.
- 금번의 유럽 보험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2008년의 실적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, 금융위기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여 보험사 자산운용의 기반을 이루는 주식과 채권시장의 붕괴에 대비한 회복 여부 점검이 될 것으로 보임.
 -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으로는 독일의 Allianz, 프랑스의 AXA, 이탈리아의 Generali 등 유럽의 Top30 보험사가 전부 망라될 예정임.
- 미국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개별 은행의 자본확충에 중점을 둔 반면, 유럽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산업 전반의 건전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 보험사에 대한 점검이 보험산업을 넘어 개별 보험사의 건전성도 점검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음.
 - 개별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금융시스템의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목적으로 2009년 3월에 은행산업 건전성을 예비적으로 평가하여 27개 회원국 재무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음.
 - 그러나 유럽도 정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시장의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별 은행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뒤따를 것으로 보임.
 - 따라서 유럽 보험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향후 개별사에 대한 자본확충 여부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(CNN Money.com 5/19)